

예수... 전태일... 이재명



전태일, 이재명, 그리고 청년 예수. 서로 다른 시대와 공간을 살았지만, 세 사람은 한 가지 공통된 길 위에 서 있었다. 그것은 가난과 차별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꾸려는 길이었다.

1970년 평화시장의 재단사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스스로를 불태웠다. 그 불길은 분노가 아니라 절박한 사랑이었다. 밥 대신 빵 한 조각으로 버티며 하루 14시간을 일하던 어린 시대들, 그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다. “우리로 인간이다”라는 그의 외침은 이후 한국 노동운동의 뿌리가 되었다. 근로기준법은 있었지만, 아무도 지키지 않았고, 그는 자신의 몸으로 그 법을 현실로 만들려고 했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또 한 명의 소년공이 등장했다. 이재명은 초등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공장에 들어가 일했다. 프레스기에 손이 눌리고, 냄새나는 기름 속에서도 그는 배움을 포기하지 않았다. 전태일이 “공부해서 세상을 바꾸라”고 남긴 말처럼, 그는 공부를 통해 정의를 추구했다. 변호사가 되어 노동자의 편에 섰고, 정치인이 되어 불평등한 구조와 싸웠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이 되었다. 가난한 소년공이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된 현실은, 전태일의 꿈이 이어진 상징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질문이 남는다. 전태일이 바라던 세상은 완성되었는가?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 산업재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사람은 또다시 숫자로 평가되고, 안전보다 이윤이 앞선다. 그 꿈은 아직 절반뿐이다. 옛그제도 울산에서 가난한 노동자들이 화력발전소 해체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싸늘한 시신이 됐다.

이때 ‘청년 예수’의 모습이 겹쳐진다. 목수의 아들 예수 역시 가난한 노동자였다. 그는 권력의 중심이 아닌, 병든 자와 버려진 자들 곁에 머물렀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의 말은, 전태일의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유언과 닮아 있다. 둘 다 낮은 자의 고통을 통해 세상의 양심을 일깨우려 했다.

예수는 사랑으로, 전태일은 희생으로, 이재명은 제도와 정치로 세상의 변화를 꿈꾸었다. 세 사람의 교차점은 연민에서 정의로, 정의에서 사랑으로 이어지는 길이다. 아직 그 길의 끝은 멀지만, 우리가 그들의 꿈을 기억하고 현실 속에서 실천할 때, 노동이 존중받고 인간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비로소 도래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정신이 흐려질 무렵 우리에게 나타나 ‘그분은 이러하다’라고 삶으로 웅변한 전태일을 기념해 ‘청년주일’로 봉헌한다.

2025년 11월 9일
통권 13권 45호
창조절 10주일 · 청년주일

2025년 벙커1교회 표어
κόσμος 코스모스
세상 질서 조화(요한 3:16)

다만 정의를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서로 위하는 마음 개울같이 넘쳐흐르게 하여라.

벙커1교회 주제성구 아모스 5:24

섬기는 사람들

목사 김용민 · 장로 민에스더
전도사 오광석 최새론 이용수


교회 위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
(화랑로546번길 16-12)

010-9341-2012

bunker1churchweb@gmail.com

bunker1.me

 **누룩TV**

벙커1교회는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소속으로 하늘의 뜻이 땅에서 펼쳐지도록 애쓰고 있는 개혁적 개신교회입니다.

창립기념일 2012년 6월 10일



새 교우 등록을 원하는 분은 좌측 QR코드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하여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함부로 빼앗지 말고, 고생하는 사람을 법정에서 압제하지 말아라.”

잠언 22:22

주일에배순서

찬양

인도 오광석 전도사

보컬 이난주 집사·김자경 교우·이혜정 집사·이진영 집사·김성윤 집사·김경순 집사

연주 정진호 집사·박이정 교우·이용수 전도사·장옥상 집사·이종원 집사

사회 최한원 교우

신앙고백 Creed	병κε1교회 신앙고백	다함께
찬송 Hymn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함께
기도 Prayer		조승연 교우
독서 Bible reading	창세기 1:1	사회자
설교 Sermon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신비롭 목사
광고 News		사회자
파송곡 Closing Song	교회	다함께
축도 Benediction		신비롭 목사

■ 병κε1교회 신앙고백

모든 생명체 속에 실존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과 이상의 표상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늘 새롭게 창조하시는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온전한 사람의 형상으로 태어나시어, 억압과 고통 속에 있는 민중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으며,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므로써 정의와 평화와 사랑의 모범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 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교제를 믿으며, 남과 복이 하나 됨을 믿으며, 전 인류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 됨을 믿습니다. 죄의 용서와 존재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 성경 창세기 1:1(현대인의 성경)
1:1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 오늘 찬송가 작사자 김정준 목사

한국기독교교장모회의 '믿음의 선진' 김정준 목사는 결핵요양소에서 긴 투병을 마친 뒤, 자신의 고통스러운 체험을 신앙적으로 성찰하며 이렇게 고백한다. 이 전에는 은혜가 시련보다 더 좋은 것이라 여겨, 은혜는 구하고 시련은 피하고자 했으나, 이제는 시련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그는 은혜만이 아니라 시련 또한 간구할 것이며, 시련 속에서 받은 은혜야말로 가장 고귀하고 값진 것이라 말한다. 은혜를 잘못 받으면 그것이 시련이 되고, 시련을 잘 받으면 그것이 참된 은혜가 된다고 강조한다. 은혜와 시련은 모두 하나님의 뜻에서 오는 것이며, 인간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뜻한 봄바람도, 차가운 겨울바람도, 폭풍우와 청명한 날씨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 말한다. 그러므로 은혜에만 감사하고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며, 은혜에는 감사하고 시련에는 기도함이 믿는 자의 도리라고 가르친다. 그는 "좋은 일만 은혜요, 나쁜 일만 시련이라 여기지 말라"며, 웃음 속에서도 시련을, 눈물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마지막으로 "주여, 은혜를 주시든 시련을 주시든 주의 뜻대로 하소서"라며, 은혜와 시련 모두를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하고 성숙한 신앙의 자세를 고백한다.

■ 찬송 9장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하나님



1. 하늘에 가득찬 영광의 - 하나님은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2.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은 해가 쫓겨 구원의 - 하나님
 3.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 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4.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 되어 새희망이 솟는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생명의 구원의 하나님
 권능과 지혜와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 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종교는 본래 인간 정신을 고양하고 사회 도덕의 나침반이 되어야 하나, 오늘날 일부 종교 세력은 정치권력과 결탁하며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표심을 무기 삼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법 위에 군림하려는 '면죄부'로 활용

최근 사건들은 종교가 세속 법망을 피하는 '비밀 통로'로 악용되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건진법사 사례처럼, 고가 선물 전달 시 "종교 쪽은 사고가 없다"고 설득하는 것은 종교 영역을 법적 면책 특권처럼 여기는 위험한 인식입니다. 이는 방산기업 회장의 현금함 자금세탁 악용 사례처럼, 세금 비과세와 수사 대상 제외라는 현실적 허점을 악용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선거법 위반 구속을 '종교 탄압'으로 몰아가는 시도는, 범법 행위를 개신교 전체의 수난으로 포장하여 종교를 법 위에 두려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태입니다. 교리가 세속 법률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고등 문명국은 없으며, 이는 정교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표심을 인질로 잡는 '정치적 교권주의'

더 심각한 것은 종교 세력이 조직적 표심을 정치에 투입하여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정치적 교권주의'입니다. 교주의 지시에 따른 특정 정당 경선 집단 투표(예: 신천지의 '윤석열 몰아주기')는 종교의 자유가 아닌 명백한 반민주주의입니다. 정치권은 이 조직표의 위력을 의식해 비판을 자제하거나 오히려 잘못을 두둔합니다. 특검 출석 요구를 무시한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를 향해 정치권이 비호한 것은 이 카르텔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수십 년간 보수 정권과 밀착하며 쇠락하는 종교 영향력을 세속 권력으로 대체하려 한 김 목사의 행태는 이 '정치적 교권주의'의 원조 격입니다.

사회를 병들게 하는 두 가지 독소

종교 세력의 정치화는 사회에 두 가지 독을 퍼뜨립니다.

정치의 왜곡: 국민 전체 이익이 아닌, 특정 종교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책과 인사가 결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국가 조찬기도회 같은 행사가 부패와 인맥 형성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정의의 상실: 범법 행위가 '종교 탄압'이라는 성역 뒤에 숨어 면죄부를 받으려 합니다. 목사 개인의 비리 수사는 결코 '종교 탄압'이 아니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사회 정의는 설 자리를 잃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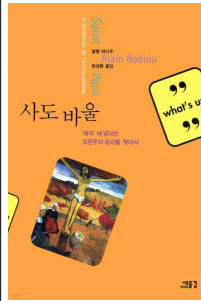
카르텔 해체를 위한 '골든타입'

힘을 잃은 종교가 세속 정치에 간섭하는 이 현실을 방지하는 것은 민주주의 수호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치적 교권주의 카르텔 해체를 위한 핵심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법의 엄정한 적용: 종교인, 대형 교단 지도자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습니다. 특검 수사에 불응하거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세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처벌해야 합니다.

종교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지, 정치권력의 그림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는 선(善)을 위한 방패이지, 악(惡)한 권력을 위한 방패가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유혹을 끊어내고, 정치와 종교가 각자의 영역에서 제 역할을 되찾아야 할 결정적 순간입니다.

김목사와 책읽기 알랭바디우 '사도바울'



프랑스의 철학자 알랭 바디우는 현대 사상계에서 매우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인물로 평가 받는다. 그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 바울』이다. 흥미롭게도 바디우는 많은 진보적 신학자들조차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바울을 새롭게 읽어낸다. 종종 바울

은 예수의 가르침을 제도화하여 '주 예수'를 '주 예수'로 만들어버린 인물로 여겨지지만, 바디우는 그를 혁명가로 보았다.

교회 전통이 바울을 "예수의 부활이라는 신화적 사건을 전한 열정적 신앙인"으로 이해했다면, 바디우는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가 "삶을 완전히 바꾼 사건에 충실한 사람"으로 해석한다. 그가 주목한 핵심 개념은 '사건(event)'이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체험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모든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출발점이었다. 바디우는 이 부활 사건을 "인간의 이성과 증거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그것을 믿고 살아낼 때 진리가 드러나는 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중요한 것은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사건에 끝까지 충실하게 살아가는 태도, 곧 '충실성(fidelity)'이다.

유대인으로서 율법에 충실했던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같다"고 선언했다. 바디우는 이 말을 모든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성의 선언으로 읽는다. 혈통, 문화, 지식, 신분으로 사람을 구분하던 세상에서, 바울은 "이제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다"고 선포한 것이다. 바디우에게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새로운 공동체와 인간의 가능성을 여는 정치적 선언이다.

교회가 말하는 '믿음'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뢰라면, 바디우에게서 믿음은 사건에 끝까지 충실하려는 결단이다. 규율, 제도, 성례 같은 교회의 형식보다 그는 바울을 통해 진리에 따라 살아가는 새로운 인간, 즉 '사건에서 태어난 주체'를 보여주려 했다.

물론 보수 신학자들은 이러한 해석을 비판한다. 바디우가 바울을 철학적으로 이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의 의미를 지워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바디우의 바울 읽기는 또 다른 차원에서 "누구나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진리와 보편성의 길"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 아마 그 두 가지의 교차점에 서야 하지 않을까. 차별 없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우리는 교회의 바울과 바디우의 바울을 대립된 존재로가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두 거울로 보아야 한다. 교회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믿음의 사도, 바디우의 바울은 새로운 세상을 여는 사건의 철학자다. 이 두 시선은 상반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두 축일 것이다.

주일학교 오전 11시 🏠

벙커업 (어린이) 1층 우리지금만나룸 열왕기하 17:7~18 복이שראל의 멸망 오광석 전도사	벙커틴 (청소년) 미디어공간대어 느헤미야서 4:7~15 싸울 때 싸우자 최새론 전도사
--	---

수요일예배 수 오후 7시 📺

찬양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본문	욥기 22장
설교	정하다, 이 친구들 김용민 목사

새벽성서읽기 월~금 오전 5시 📺

월	출애굽기 7장 못 믿는 모세에게 징표를 보여주시다
화	출애굽기 8장 '피개이파축종박메암자'의 시작
수	사무엘상 9장 겸손한 왕
목	마태복음 5:21~32 분노와 음욕에 대한 교훈
금	마태복음 5:33~42 맹세와 보복에 대한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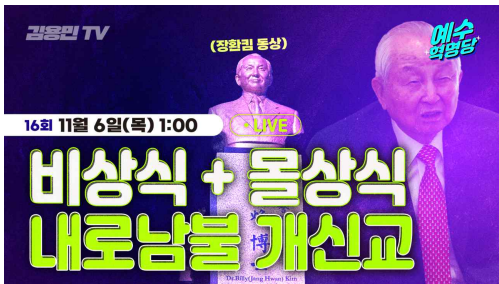
(월·화) 김용민 목사 (수) 최새론 전도사
(목·금) 오광석 전도사

유튜브 콘텐츠 제작 일꾼

주일 박만호 PD · 수요일 김시현 PD ·
새벽성서읽기 박종욱 집사

벙커1교회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방법

- 지하철 3호선 삼송역 ③번 출구
→ 도보 1.9km
- 마을버스 삼송역 ③번
→ 075A탑승 (DMC역 방향)
용현마을사거리 하차
- 시내버스 1·4호선 서울역③번
3호선-GTX A 연신내③번
→ 703탑승 (탄현역 방향)
→ 동산고등학교 하차



신앙은 본래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사랑하게 해야 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억압하고 병들게 합니다. 특히 '우리만 옳다'는 배타적 믿음이 그렇지 않나요? 무조건적 맹신과 복종, 또 물질적 보상을 약속하는 왜곡된 해로운 신앙은 우리를 천국이 아닌 감옥으로 이끄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벙커1교회 계좌

헌금 신한은행 100-033-864027
특수목적 신한은행 100-035-696724

교회소식

주일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과 새 신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서는 이상훈 A(시주)님과 정성원(우미) 집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주일 13일은 전태일 열사 산화기일(올해 55주기)로 교회는 전주 주일인 오늘 청년주일로 지냅니다. 설교는 평화나무 기자이며 최근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에서 안수를 받은 '청년 목사' 신비롬 목사가 말씀합니다.

다음주일 추수감사절 16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냅니다. 당일 식사 후 소박한 감정에 보쌈과 육개장, 해남 고구마를 곁들인 음식나눔을 합니다. (윤혜정 집사 육개장 헌물) 교회는 아울러 차후 공동의회에서 새해부터 추수감사주일은 어느 때로 정할지 논의하고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양미혜 장로 임직식 양미혜(미슈가) 장로 임직식이 23일(주일) 오후 4시 한신대 서울캠퍼스 컨벤션홀에서 있습니다. 교인 카카오톡 방에 웹자보 초청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당일 순서 맡아주실 외빈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도 : 이영미 목사 · 한국기독교교정생활협회 총무
- 성경봉독 : 정환석 목사 · 수유한신교회 담임, 시찰회장
- 설교 : 육순종 목사 · 성북교회 담임, 증경 총회장, 노회장
- 축사 : 홍승헌 목사 · 한빛교회 담임, 전 임시당회장
- 축가 : 김묘성 님 / 패러디 축사 : 이상민 크리에이터

카라반 곧 입고 교회학교를 위한 카라반이 20일 교회에 입고될 예정입니다. 교회는 이 공간의 이름을 '찾았다'라는 의미의 유레카로 정했습니다. 30일부터 벙커틴예배 장소는 교회로 옮깁니다.

옥바라지선교회(10월 교회 십일조 기부기관)의 인사

여행 가는 팬더주니어

와!!! 귀한 사역 하고 계시네요. 보내주신 마음 감사히 받아 힘차게 활동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100-033-864027 **벙커1교회**

11월 교회 십일조 인권연대	11월 안내 2여교우회	지난주 헌금액 5,383,004원
--------------------	-----------------	-----------------------